

찬란한 옷을 입은

금 계(錦鷄)

영명 : Golden Pheasant
학명 : *Chrysolophus Pictus*
일명 : Kinkei



김 성 수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수의학 박사

닭목(目) 꿩과(科)에 속하고 중국 남서부에 분포하며 해발 2천m이하의 산지 또는 경사면에 서식하고 식물의 씨앗, 곡류, 곤충 등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간다.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금계를 길조(吉鳥)라 하여 마구 포획하였고 보약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약제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사육조(飼育鳥)로서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 분포되어 서식하고 있다.

이름이 '금계'라 하여 닭과 비슷하게 생각되지만 닭(鷄)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꿩(雉)과 비슷한데 '장끼'와 비슷한 수컷은 황금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며 머리는 금발로 황금색의 뿔(冠羽)이 길게 늘어져있고 부리는 황갈색이며 목에는 노란색의 털이 부채꼴 모양으로 늘어져있고 허리도 황금색이며 가슴과 배(腹)는 붉은색이고 등(背)은 녹색이며 날개는 청색이고 꼬리는 노랑고 길며 흑갈색과 노란색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몸길이는



90cm이고, 암컷은 다갈색의 몸통에 검정반점이 있고 꼬리가 더 길며 마치 '까투리'와 비슷한데 꿩의 깃털은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반면 금계의 깃털색은 단조로우

“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금계를 길조(吉鳥)라 하여 마구 포획하였고 보약의 효험이 있다고하여 약제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사육조(飼育鳥)로서 번식이 잘되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 분포되어 서식하고 있다.

이름이 '금계'라 하여 닭과 비슷하게 생각되지만 닭(雞)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꿩(雉)과 비슷하다.

”

나 그 경계가 뚜렷하여 원색을 강하게 나타낸다.

봄철에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성질이 몹시 난폭해지고 사나워져서 암컷을 공격하는데 심하면 폐사(斃死)시키는 경우까지 생긴다.

'끼익 끼익' 하는 소리는 다른 수컷들의 접근을 막고 자기가 차지한 암컷은 절대 복종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암컷에게 구애(求愛)할 때는 목깃털을 부채처럼 활짝 퍼는데 이때 황색의 우관과 허리의 깃털까지 모두 일어서서 마치 휘황찬란함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둥우리는 지면위에 파고 풀 등을 깔아서 만들며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는 4~6월에 7~12개의 알을 격일로 산란하여 암컷이 포란하면 23~24일만에 예쁜 금계 새끼가 태어난다. 양계

* 필자 연락처 : 017-285-7581